
2021년 제2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5. 28. ~ 6. 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29.	시청률	0.088

【총 평】

특집, 통큰 인생 시리즈 첫 번째 '270헥타르 산을 통 크게 공유하다!'편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붓꽃섬에서 임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귀산 23년 차 주인공을 소개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본능과 열망을 건강한 야영장 운영으로 보여주면서, 농사와 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산을 나눠주고, 숲이라는 자원을 공유하는 탐색 공간으로 운영하는 주인공을 소개해 흥미로웠다. 특히, 농사도 짓고 임업자 양성도 하면서 캠핑도 하는 1석 3조 캠핑장이자 자연 속 마을 같은 캠핑장을 소개했다.

전반부에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모습으로, 후반부에는 임업 후계자를 양성하는 모습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 인상적이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산과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어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주인공이 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곳을 찾는 다양한 가족들을 통해 왜 이 캠핑장만 계속 찾게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또, 각종 체험 현장을 소개하고 자연의 소중함도 강조했다. 이밖에 강의를 통해 임업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산을 공유해주면서 임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자연속에서 야영을 하며 생산적인 작은 주말 농장을 가꾸며 위안을 얻는 캠퍼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시화로 삭막한 생활은 푸르른 숲과 자연, 흙을 대하며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생활을 보여주어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였다.

전반부는 캠핑장을 찾은 여러 가족들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소중함을 강조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즐기고 밥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이런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인상적이었다. 또, 캠핑장을 수년째 찾으면서 영감을 갖고 직접 노래까지 작곡한 청소년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 가족이 들려주는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산에서 보낸 하루가 몇 수레의 책보다 낫다'는 문장이 자막으로 표기되어 효과가 높았다.

중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임업 후계자를 양성하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산림경영법을 통해 후계 임업지망생들과 가르치며,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전해주었다. 임업은 다른 농업 경영 방식보다 오랜 세월 기다려 나무를 키우고 숲을 가꿔가야 하기에 보편화되지 않은 부분을 멘토로서 충실히 이끌어 주고 있었다.

임업 노하우를 가르치며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 한층 더 전문가다웠는데, 실제 수익 산출을 위한 노하우와 경영 마인드가 차례로 소개가 되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다. 또, 자신의 사업과 인생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임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한 넉넉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29.	시청률	0.027

【총 평】

‘장인의 혼이 담긴 구두 이야기 - 서울 성수동’편은 우리나라 수제화 중심지인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에서 반세기에 걸쳐 손으로 직접 구두를 만들며 장인의 명맥을 잇고 있는 수제화 명장들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표현돼 큰 감동을 제공했다.

그 동안 소리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 대상이 자연풍광이었던 점에 비춰 오랜 기간 자신의 혼과 기술을 숙성시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을 소재로 인물탐구를 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었다. 또, 구두 한 켤레에 온갖 혼과 정성을 불어넣는 장인 정신이 구두를 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살아나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3가족 구두공장에서 부전자전으로 명장의 기술이 전수되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수제화거리의 풍경과 더불어 수제화 공장에서 장인의 손길이 그려졌다. 그들이 일일이 자르고 다듬으면서 점차 완성되어가는 구두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전해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가 튀지 않고 적절하게 어울리면서 전해졌다.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어제와 오늘의 명암이 그려지고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수제화 구두중심지 브랜드를 살려 나가는 명장들의 투혼을 조명했다. 이 밖에 장인정신을 부각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자동화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수제화 명품 브랜드를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코로나 위기속에 힐링과 용기를 선사했다.

수제화거리에 위치한 구두공장에서는 수제화 장인들의 구두의 껍데기를 재단하는 가위질 소리부터 이를 박음질 하는 미싱소리, 구두 바닥을 망치질하는 소리 등이 채워진다. 좁은 공간에서 장인들의 투박한 손으로부터 정교한 손놀림을 거쳐 수제화가 탄생된다. 수제화 공장을 함께 꾸려나가는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고 배우며 수십 년의 경력을 이어간다. 수만 번의 손길이 있어야 완성되는 수제구두를 위해 자신만의 일을 묵묵히 이어간다.

45년 경력의 구두장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일이 제조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잘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어느 새 아들의 손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등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뚝심이 살아났다. 성수동 수제화거리, 탄생의 공간, 공존, 기술 전수 등으로 구성된 점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고 망치로 다듬는 소리, 미싱 소리, 가죽 써는 소리 등을 잘 채움했다. 구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세밀하게 포착해 그것만으로도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수고가 있어야하는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이 밖에 가죽 고르는 일, 디자인, 모양 재단, 미싱 작업, 저부 작업, 구두끈 작업 등 구두 명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수제화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

특히, 구두 장인들의 이야기와 자막표현에서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뚝심이 살아났고, 제작과정의 리얼한 현장 사운드 채취가 사운드멘터리의 제작의도를 잘 살렸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29.	시청률	0.020

【총 평】

‘친북’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및 성과,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예정시간을 넘긴 171분간 대면회담, 크랩 케이크 오찬 메뉴 속에 담긴 의미 등 회담 뒷얘기까지 다뤄 흡인력을 높였다. 이 밖에 회담 결과에 나타난 성과와 북한의 대응 등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었다.

‘이슈텔링’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의 장마당 통제 강화 이유와 속사정, 악화되는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뤄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북한이 장마당을 통제하는 속사정을 털어놓고 북한 경제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이 밖에 치솟는 장마당 물가로 최근 최악의 상황인 북한 주민의 생활이 소개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구성 및 내용】

지난 5월 22일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및 성과,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171분간 이어져 많은 소통과 교감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 중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정교하고 실용적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찬 메뉴로는 미국 동부의 전통음식인 메릴랜드 크랩케이크가 화제가 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스가 총리와의 대담 중 햄버거를 메뉴로 삼은 것과는 비교가 되는 장면이었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주한 미국 대사로 일한바 있으며 미 국무부의 한국전문가로 한반도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으로 한반도 문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블링컨 장관이 발언한 ‘공은 북한에 있다’라는 발언은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일괄 타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과는 궤를 달리한다. 한편 5월 26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뉴욕을 들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북한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북한의 장마당 통제 강화와 북한 주민들에게 부는 변화의 바람에서는 북한의 장마당 통제 속사정은 세금 징수,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외래문화 통제, 체제 유지를 위하는데 있다는 점이 폭로됐다. 악화되는 북한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경제난 인정과 함께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프로그램	인터뷰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5. 29.	시청률	0.015

【총 평】

“슬픔을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편은 배우 이광기씨가 12년 전 신종플루로 사망한 아들과의 사랑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예술로 나누는 쌍방향 나눔과 행복을 진솔하게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슬픔은 물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었다. 선물 같은 아들에게 쓰는 편지를 시작으로 아들에게 “잘했다”라는 칭찬 듣는 아빠이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담백하게 토로하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구성 및 내용】

“슬픔을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편은 ‘12년 만에 아들에게 쓰는 편지’, ‘슬픔은 더 큰 사람으로 승화시키는 법’, ‘광끼의 예술과 나눔, 새로운 행복’으로 구성했다.

배우 이광기씨의 절망의 계절을 견뎌낸 새로운 성장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로 방송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선물로 다가왔던 배우 이광기씨의 아들이 12년 전 신종플루로 갑작스럽게 이 땅에서의 소풍을 일찍 마감하였다. 큰 아들 덕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배우 이광기씨의 진솔한 이야기 즉, 아들이 아버지 이광기씨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기부와 나눔의 상징이 된 아빠의 희망 이야기를 담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배우 이광기씨는 아들을 떠난 보내고 12년만에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는 책을 출간했다. 아들이 남겨진 가족에게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배우 이광기씨에게 아이티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현장인 학교를 세워주는 크나 큰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승화시킨 과정을 전달했다.

이광기씨가 아이티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월드비전 홍보대사 활동까지 이어가면서 아들이 남기고 간 선물임을 깨닫고 세상에 나눔의 행복을 전하게 되었다고 소회하였다.

이광기씨는 사진작가로서 설치 미술작가로서 미술 컬렉터로 활동하면서 아이티의 봉사활동과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광기씨가 아들 사랑을 승화시켜 전하는 세상에 대한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가 그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배우 이광기씨가 전한 힘이 되는 내 인생의 한마디는 “고난도 내 인생을 만드는 한 과정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로 평범하게 들리지만 몸소 실행하며 진정한 아들 사랑을 실천했던 부분을 여과없이 보여주어 그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눔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거창한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눈빛만으로도 나눔임을 알려주었고, 진정한 행복과 사랑에 대한 실천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눠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5. 30.	시청률	0.011

【총 평】

‘이달의 뉴딜 - 그린뉴딜을 통한 상생과 미래’편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해상풍력 지역 상생을 소개해 5월 30일 개최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부합했고,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이 돋보였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전북의 학교혁신 사례로 교실의 형태가 바뀌고 아이들의 수업 내용이 달라지는 교육현장에 붙어온 뉴딜 현장을 소개했고, 해상풍력 지역상생은 제주도 두보리, 금등리 마을이 해상풍력발전을 받아들여 이익을 나누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생과 공존의 모범 사례이다. 또, 그린 뉴딜의 상생과 미래와 관련 세간의 오해와 왜곡된 부분을 증명해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이달의 뉴딜 - 그린뉴딜을 통한 상생과 미래’의 주요 내용은 학교 공간의 혁신을 다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해상 풍력의 지역 상생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북 완산구에 소재한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획일화된 이전 학교와 전혀 다른 진화된 학교 모습은 어떤지, 공간 혁신이 가져온 창의적인 학생과 수업의 질 향상을 소개했다.

전주교육대학 부속 초등학교는 교실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었다. 미래형 학교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공간의 혁신’은 수업을 바꾸고 아이들을 변하게 한다. 또, 이 학교는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실은 벽을 움직여 광장을 만들고 이곳에서는 버스킹도 가능하다. 획일화 대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현장인 것이다.

특히, 학교공간의 혁신적 변화에 따라 아이들은 변화된 공간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즐겁게 공부했다. 교사들은 공간 활용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열정적으로 다가왔다.

또, 지역과의 상생과 공존을 이끌어낸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마을은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의 수익금으로 마을 발전과 복지에 사용하는 사례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을 통한 상생과 미래를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제주도 두보리 금등리 주민들은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대립했다. 막연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내용이 필요했는데, 회사는 정보를 남김없이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은 대화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나누는 방법을 만들어 냈다. 제주한달살기 주택에 투자해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결국 사업은 추진할 수 있었고 오는 2023년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립을 상생과 공존으로 이끌어 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한달살기 체험용 주택에 대해 이용자들은 편리성과 주거의 쾌적함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해상풍력이 설치된 이후에도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수중생물이 풍부하고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5. 30.	시청률	0.133

【총 평】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으나 일손 부족과 품삯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위해 모내기 대신 '드론 파종'을 지원한 공주시의 선진 영농 사례와 교차로 신설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서산시의 위민 행정 수범사례가 소개되었다. 공주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드론 파종과 함께 무인보트로 농약을 살포하는 방안을 농촌에 확대해나갈 계획이었고, 서산시는 법적 기준 미달로 교차로 설치에 난항을 겪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특히 첨단 기계화 영농의 경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제시돼 우리농업이 나아갈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공주시의 '모내기 대신, 드론 파종'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고, 서산시의 잘못된 도로 구조를 주민의 관점에서 개선한 사례는 기존의 법적체계를 고집하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 사례였다.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민의 애로사항을 드론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 공주시 사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 드론으로 파종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반응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취재를 구성해 현장감이 살아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특히, 이양기의 보급으로 과거에 비해 일손 부담이 덜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해 최첨단 기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내기용 드론을 활용해 법씨를 뿌리면 농사의 효율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용 드론으로 20kg의 법씨를 들고 약 13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직파 방식이라 노동량도 줄어들어 공주시 농촌 기계화 지원 정책은 농촌 사회에 활력을 넣고, 타 지역에 모범이 됐다.

서산시의 도로구조 문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인터뷰로 시작했는데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도입이었다. 충남 서산시 동서간선도로 인근 주민들의 우회로 이용 현실을 지적하고 교통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교차로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충남 서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는 동서간선도로가 왕복 6차로로 조성되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기 힘들었다. 해당 도로에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아 유턴진입만 허용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서산시청은 민원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시속 80km 구간에는 교차로 설치가 불가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어려웠다. 그러나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지난달 교차로가 완공되었고 보행자용 신호등까지 설치되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5. 30.	시청률	0.000

【총 평】

‘1인 가구 600만 시대 맞춤 프로젝트’와 ‘카드 혜택 누리는 생활문화 지원 정책’을 소개해 1인 가구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1인가구 나홀로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과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안전복지정책’ 등 수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또,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정책 미담’, ‘정책 미담 스토리 컷’, ‘키워드 & 트렌드’ 등의 구성을 활용해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정보의 성격을 달리 한 것은 시청자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구성 및 내용】

‘1인 가구 맞춤지원정책’은 이미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에 필요한 주거안정과 안전귀가서비스를 소개했고,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정보였다는 점 그리고 ‘알뜰교통카드’는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환경문제를 아울러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정보였다.

‘정책 미담’은 서초구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소개해,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정책 활용 사례를 알 수 있었다. 2019년 1인 가구 및 연령대별 비중 통계치를 제시하여 1인 가구 전체 현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택점유 형태를 바탕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소개했고, 안전복지 정책은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조해 각 지역별 안전귀가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1인 가구 600만 시대’, ‘혼밥챌린지’ 등 1인 가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를 제시하고 정책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관심을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인 가구 중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통계를 제시한 뒤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꼼꼼하게 챙긴 효용성 있는 정보였다. ‘안전귀가서비스’는 1인 가구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보였고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도 좋았다.

‘정책미담 스토리 컷’은 문화누리카드 할인 혜택을 활용한 여행이 가능했다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사용과 혜택 사례를 소개해 활용을 권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에게 문화를 누릴 여유를 주고 국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 금액이 책정된다. 2020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개인 행복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덜어주는 ‘알뜰교통카드’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대상 지역이 16개 시도와 136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키워드&트렌드’에서는 올해 예술 분야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4% 증가한 것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5. 30.	시청률	0.005

【총 평】

“왜? 지금 그린뉴딜, 탄소중립인가!”편은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계 역할과 노력은 무엇인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내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기후 변화, 지구 환경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선정한 주제라 계기성과 시의성을 담아내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전 세계화가 필요하다. 그린 뉴딜은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부흥정책으로 뉴딜정책의 3R은 구제, 회복, 개혁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 생태계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저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로 인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과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감축, 탄소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에너지 및 기술 사용 확대 등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이용 기술개발 및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정책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변동이 커서 전력 수요 공급의 실시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는 전체 탄소의 3분의 2를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더 심해 85%를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 부문의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수출지향적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철강과 석유화학은 기간산업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인 수소환원제철로 정해 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철스크랩, 펄릿 강화로 탄소량 줄이기, 태양광의 그린 수소로 경제성 갖춘 전기활용, 저탄소 및 친환경 관련 최적가용기술 활용 등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은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 저탄소제품 및 순환제품을 개발하고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이나 민간금융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계는 저탄소 및 순환 가능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안 격포항에 마련된 해상 풍력 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을 소개하고 해상 풍력의 장점을 강조했다. 전북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은 목재 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난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밖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산업 분야에 제대로 접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